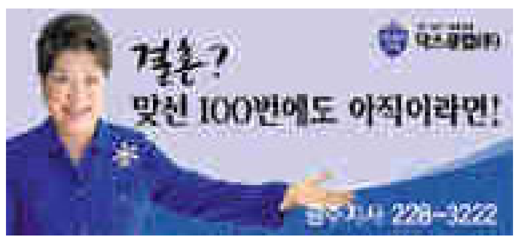
光州日報



제1757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10월 9일 (음력 8월 18일) 월요일

가장 행복한 추석 보내고 첫·출·근·합·니·다

광주·전남 장애인 33명 6개월 맞춤훈련 마치고 삼성전자 취업 성공

"내년 설에는 달덩이처럼 푸짐한 선물을 한 꾸러미 챙겨올게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일 8일 오후 1시, 지체장애 5급 정순동(31·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부모와 가족들의 '환한' 얼굴을 뒤로 하고 수원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9일부터 수원 삼성전자 가전제품 개발 설계팀에 첫 출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 문턱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던 아픔도 씻어낼 수 있었다.

정씨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괴롭기만 했었는데 막상 직장에 나간다고 하니 실감이 안난다"며 "첫 월급을 타게 되면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조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다"며 웃었다.

정씨를 비롯해 '전남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원장 김옥주)에서 6개월간의 '맞춤훈련'을 마친 장애인 훈련생 33명이 취업에 성공, 9일부터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게 됐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기계 CAD/CAM분야, OA 전문분야 등 6개월의 훈련과정을 모두 마치고 삼성 측의 입사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다.

이들이 합격의 기쁨을 얻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지체·언어·뇌병변·청각 등 다양한 장애를 지닌 훈련생들은 생전 처음 만져보는 낯선 기계와 복잡한 이론에 애를 먹었다. 여름 방학때 2주간 휴가가 있었을 뿐,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달렸다.

지체장애 6급 정혁수(29·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취업을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제 몫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생전 처음 직장을 갖게 된 이들은 삼성전자 수원·천안·구미공장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된다.

광주·전남 지역 등록 장애인은 15만2천여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률은 38.2%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장애를 딛고 취업에 성공한 정순동(사진 가운데)씨가 9일 첫 출근에 앞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 정씨를 바라보는 부모의 표정에도 웃음이 가득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징검다리 휴일로 예년보다 한층 여유로웠던 올 추석 연휴가 끝났다. 연휴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광주역을 찾은 귀경객들이 고향에서 싸온 선물을 양손에 가득 든 채 함박웃음을 머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추석 民心은 싸늘했다"

정치권 불신 심각…밑바닥 경기 실감

광주·전남 국회의원 귀향보고

일주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귀향 활동을 벌이고 돌아온 광주·전남지역 여야 의원들은 "체감 경기가 여전히 바닥을 헤메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역 민심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전투구 식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며 싸늘한 바닥 민심의 현 주소를 전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정계개편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 민주세력이 대통합을 이뤄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권재창출을 이뤄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지역구 재래시장을 돌아보니 지난해보다 노점상들이 2배나 늘어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으며 여당 의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다"며 심각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 의원은 "정계개편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았는데 거의 대부분 빠른 시일 내에 민주당과의 통합 등을 통한 민주세력의 결집으로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광양·구례)도 "지역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며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이뤄야하며 고건 전 총리도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족들이 많았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김태홍 의원(광주 북 을)도 "재래시장에서 만난 상인들 대부분은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경기에 코가 빠진 모습이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 지역민들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 분열된 민주세력이 코딱지 같은 기득권을 버리고 거대한 민주세력 대통합의 강물을 이뤄 정권 재창출에 나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한 민심도 여당 의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효석 의원(담양·장성·곡성)은 "지역 경제는 아직도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특히 농민들은 한미 FTA와 면세유 문제 등에 대한 불안한 심정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농민들의 한미 FTA에 대한 공포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정계개편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호남이 소외되지 않는 정권 창출에 나서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영광·함평)은 "재래시장 상인들은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으며 농민들도 '오늘은 괴롭고 내일은 불안하다'며 깊은 주름살을 지었다"며 날로 악화되는 농촌의 현실을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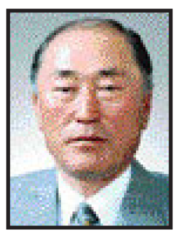
김종태 前 광주일보 회장 영면

지난 4일 지병으로 별세한 김종태 전 광주일보 회장의 영결식이 8일 오전 9시 광주 무등장례식장에서 불교장으로 엄수됐다.

〈관련기사 8면〉

이날 영결식은 개식사, 독경, 약력 보고, 유족인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족과 고인의 지인을 비롯해 광주일보 김진영 사장 등 광주·전남지역 각계 인사와 광주일고 야구부원 40여명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영결식이 끝난 뒤 영정을 앞세운 운구 행렬은 고 김 전 회장의 생가와 광주일보 전 사옥이었던 전일빌딩, 담양 창평컨트리클럽에서 노제를 지냈다. 고인의 시신은 이날 낮 12시께 담양군 봉산면 선영에 안장됐다.



1939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 김 전 회장은 경복고·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1962년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에 입사해 1975년 전남일보·전일방송 사장에 취임했다. 1980년 언론 통·폐합 조치로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이 통합돼 광주일보가 창간되자 사장에 취임했으며 2003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역언론인으로서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창달에 앞장서 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경현(64)씨와 아들 형준(창평CC 대표), 딸 정은, 석은, 소은 등 1남 3녀가 있다. /이승배기자 lsb54@

"北 핵실험 특별한 징후 없다"

정부 당국자 "관련국과 수시로 분석"

정부 당국자는 8일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북한이 물리적으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관련국들과 연락하며 서로 평가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다만 성격상 지하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핵실험) 계획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금명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 같다'는 외신보도들과 관련, "핵실험이 '언제일 것이다', '며칠이다', '이번 주말이다'라는 얘기들은 전부 추측"이라며 "그런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상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이 모두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해선 안되며, 만약 핵실험을 할 경우 상황은 엄청나게 변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결국 북한이 겪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포함된 메시지를 각각의 경로들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